

광나루 한강공원

보드타는 장소 확보 요청서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요청자 대표 : 김창중

1. 보드 이용객의 모습과 역사
2. 그간 임시로 사용하던 장소
 3. 현재 상황
 4. 불편 사항
 5. 건의 사항
 6. 최종 목표
 7. 끝내는 말

1. 보드 이용객의 모습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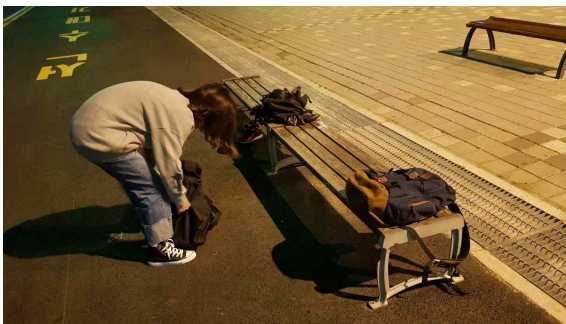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크루저보드 (이하 '보드'라고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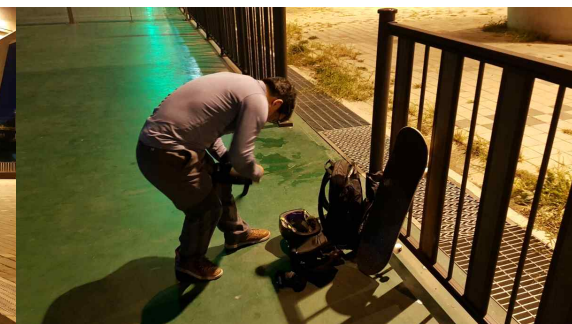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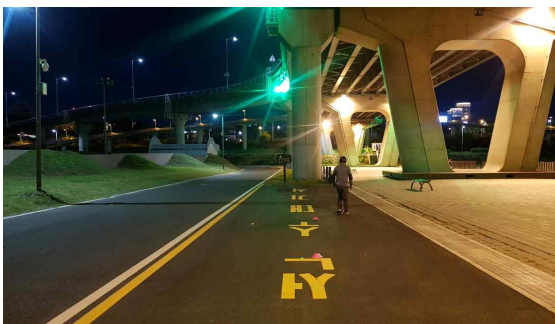
광나루 한강공원이 보드타는 장소로 유명해지기 시작한건 2013년부터입니다.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00,000명 이상의 동호인이 즐기고 있으며,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마땅히 보드를 탈 공간조차 없던 시절

저희는 인적이 드물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 보드를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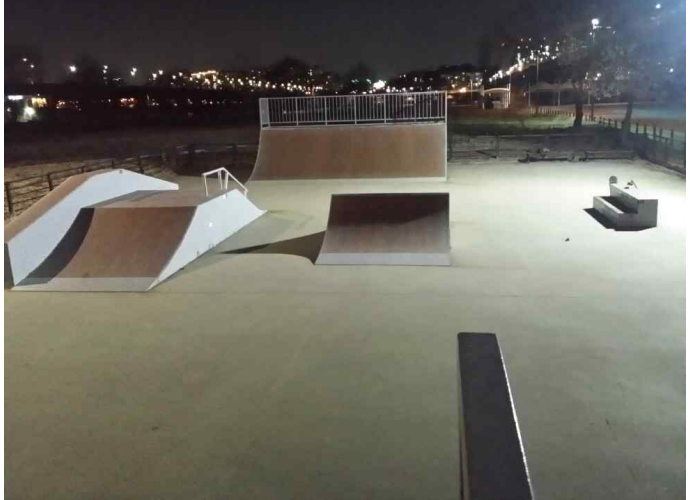




[사진 모음] 2013~ 2019 광나루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보드를 타는 동호인과 시민들의 사진

2. 그간 임시로 사용하던 장소

활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엑스게임장, 이색자전거 체험장, 자전거 경기장 옆, 드론공원 등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임시로 보드를 탔던 장소들을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활주로 2013년부터 1년동안 저희는 드론공원으로 내려가는 활주로를 이용했습니다.
	2. 인라인 스케이트장 2014년부터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서킷 가운데에서 보드를 즐겼습니다.
	3. 엑스게임장 작지만 그래도 광나루 한강공원 유일한 보드장이었던 엑스게임장도 지금은 2018년 파크골프장 및 산책로로 변경되어 없어졌습니다.

	4. 이색자전거 체험장 이색자전거 체험장도 사람이 없을때 저희가 즐겨타는 장소였습니다.
	5. 자전거 경기장 옆 2018년 자전거 경기장 옆에 만들어진 원형 서킷도 저녁마다 타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6. 드론공원 저희가 이용하는 보드장중에 가장 크고 저희에게 딱 맞는 공간입니다. 오후 4시부터는 드론을 날리지 못하게 정해져있어 4시 이후부터 출입해 가장 많이 사용한 장소입니다.
	7. 굴다리 광나루 한강공원 굴다리 진입로 겨울에는 바람이 불지않아 보드타기 좋았던 장소였습니다.

※2019년 현재 이 장소 중에서 마음편히 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3. 현재 상황



해가 지날수록 보드를 타는 인원들은 많아지는데 반해
갈수록 저희가 이용하던 장소는 규정상의 이유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보드를 타는 연령대는
10~30대 강동,송파,하남,구리,남양주 지역의 시민분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주세요.

4. 불편 사항

1. 활주로	활주로는 주말간 일반 시민분들이 통행이 잦아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보드는 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규모로 울타리쳐 다목적 공간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공간은 보드를 타는데 적합한 바닥이 아니며, 10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기에 너무 협소합니다.
3. 엑스 게임장	2018년에 폐쇄되어 용도 변경
4. 이색 자전거 체험장	자전거 전용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으며, 수십단위의 동호인이 사용 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자전거 경기장 옆 서킷	자전거 경기장 옆 서킷은 자전거 전용 트랙으로 안내표지판으로 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어, 이용하는 보드인들이 마음편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드론공원	2018년 12월부터 일반 시민 진입 방지를 위한 펜스와 입구 설치작업으로 2019년부터 4시 이후에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워집니다.
7. 굴다리	굴다리는 시민분들이 한강에 진입하는 통행로입니다. 역시나 안전상의 이유로 원활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5. 건의 사항

“마음 놓고 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1. 아스팔트의 평평한 바닥이면 충분합니다.

2. 보드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보드를 타도 괜찮은 장소인 동시에 다른 이색 스포츠 탈것이라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엑스게임장을 복원해주세요.

“뚝섬유원지가 있으니 거기가서 타면 되지않나요?” 라는 말로 지역 보더들의 마음과 엑스게임장이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좋은 부지가 있다면 엑스게임장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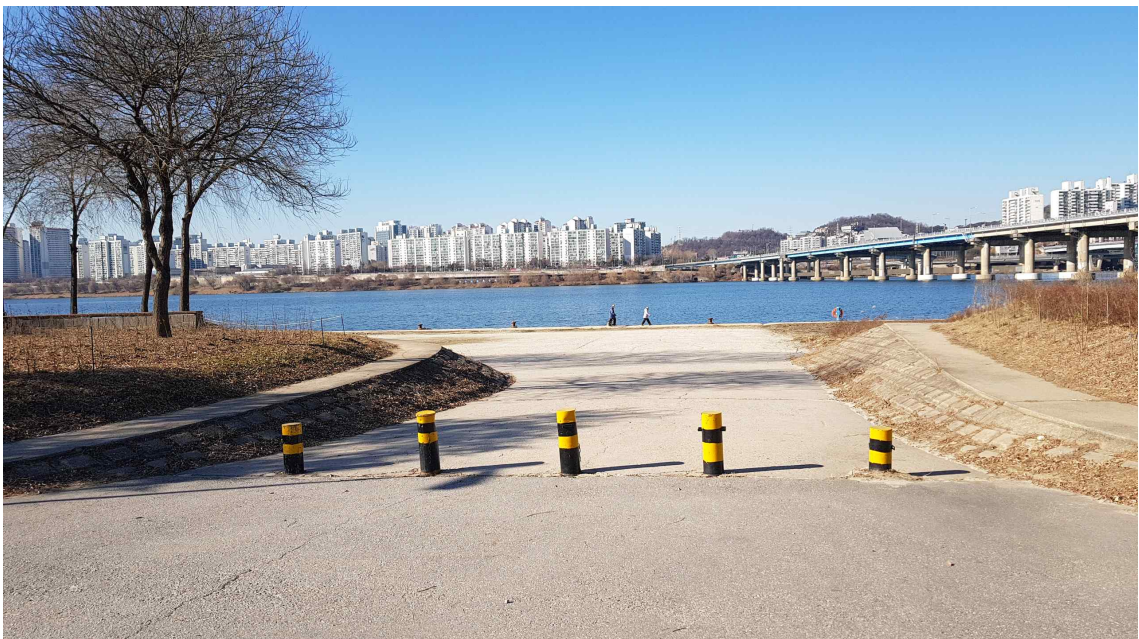
6. 목표

천호대교 밑, 무궁화 동산 뒤편

야구장, 축구장 맞은편에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바닥을 부드러운 아스팔트로 정비하고

롱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는 넓은 바닥과 스케이트보드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엑스게임장 시설 설치가 이루어진다면, 전국 10만명의 보더들에게 꿈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부지 입구



천호대교 밑



무궁화 동산 오른쪽에 진입



5년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던 부지가 있습니다.



바닥 보수가 평평하고 부드럽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진입이 어렵게 통제되어있어 안전합니다.



부지 바로 앞이 한강이기 때문에 익사사고를 방지하는 그물 펜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는 길이 자전거, 보드등의 이동수단 없이는 걸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진입도 적어 안전합니다.



부디 한강 공원을 사랑하는 보드 타는이들을 지켜주세요.

7. 끝내는 말.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지낸지 6년이 지났습니다.

순수하게 보드를 좋아하는 한 20대 청년은 3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동호인들이 가만히서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서자료를 확인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저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